

肝疾患驗方

金 敏 洙



筆者는 3代에 걸쳐 光州 井邑 全州 등지를 移居하면서 韓藥業을 하고 있다. 그러하다 보니 先親으로 부터 傳受받은 처방도 臨床에 活用하는 境遇가 많은데 오늘은 오래전에 경험하였던 驗例를 이야기 하여 보고자 한다

오래전 韓方入門 時節이었다. 58세인 김모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탓인지 체구도 좋고 성격도 활발하여 斗酒不辭라 하였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고려대학 병원에서 肝癌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만 기다리는 危險한 病者가 되어 있었다.

恒常 주사를 맞으며 임종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족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여 온집안이 모두 슬픔에 잠겨 보기도 안타까웠다.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환자를 살펴보니 全身眞黃 黃汗이 줄줄흐르며 거기다가 고약한 악취까지 나고 있었으며 등쪽에는 蕁瘡가 심하여 벌레가 생겼다고 하였다. 肝部位는 腫硬하고 喘息에 飲食全閉하고 딸국질까지 하면서 눈을 감고 意識이 昏沈하여 정신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였다.

모든 情況이 幾至死境 그대로 었다

손을 쓸 엄두를 못내고 투약을 사양하였더니 「이왕에 可望이 없으니 원망하지 않겠다」최선의 처방이라고 생각되는 것 있으면 수첩이라도 좋다고 投藥을 간청하여 할 수 없이 이 환자를 보기로 하였다

우선 급한 것이 딸국질을 그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吃逆症에 잘 듣는 처방인 愛用方을 생각하고 生薑 40g 半夏 20g 柿蒂(감꼭지) 10個를 달여서 3~4회 分服토록 하였더니 딸국질이 신기하게 나왔다.(처방은 東醫驗方新纂 連番 1001)

어어 선친의 黃疸處方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松葱茵陳湯을 投與하였다

松葉, 葱白(가랑파), 茵陳蒿를 6:3:2로 하여 全量 6kg을 水 5升으로 煎하여 반쯤 되면 1日 4回 每回 1合씩 食間服으로 이를 1週日정도 服用토록 하였다.(松葉은 한나

무에서 採集하지 말고 여러 나무에서 고루 採集하는것이 더욱 效果的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맞아서 신기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服用 3일이 되니 意識이 회복 되더니 음식을 要求하였으며 肝部 腫硬이 줄어들고 또렷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繼續 그대로 服用하니 날로 회복되어 그대로 완쾌하였다.

이 때로 부터 10餘年이 흐른 뒤 仁川으로 移居한 그 患者의 報恩의 초청을 받았으며 그 집안과는 오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이 處方은 黃疸은 물론 黑疸이나 肝炎 肝硬化 肝癌까지 肝疾患에는 두루 使用할 수 있는 名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運用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 돈이 들지 않으니 生活 困窮한 환자에게는 功德도 베풀 수 있어 참 좋다는 생각이다. 많은 회원들의 활용을 바란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87-36 수민원한약방 ☎ 063-251-9279)

● 상식 메모

養性의 12多

① 少思 ② 少念 ③ 少慾 ④ 少事 ⑤ 少語 ⑥ 少笑 ⑦ 少愁 ⑧ 少樂 ⑨ 少喜 ⑩ 少怒 ⑪ 少好 ⑫ 少惡 이 12多를 지키지 못하면 勞衛가 度를 잃고 血氣가 恣行하여 喪生의 張本이 되는 것이다. - 抱朴子 -